

용현초등학교

3학년 3반

# 우리 이야기



차례

## 시의 세계

인천용현초등학교 3학년 3반

### & 창작 시

반짝반짝 별 • 고은별

남긴 밥 • 김봄

바람 • 김태현

샤크의 모험 • 방민준

마음의 꽃 • 이예희

가을길 • 이신우

너와 나의 추억 • 이하율

검정과 흰색 사이 벽 • 이하준

알록달록 색깔 • 양에서

살랑살랑 꽃 • 서은솔

즐거운 우리반 • 신서원

무지개 • 정유철

나의 꿈 • 조하윤

포도의 꿈 • 최봄

& 시화

콩, 너는 죽었다 • 고한결

무지개 파라솔 • 김시현

달팽이 • 노윤채

바람의 길 • 민지우

콩, 너는 죽었다비 • 박찬솔

오리 발에 붙었다 • 여민준

입 • 오진우

참새 • 윤민준

산길 • 오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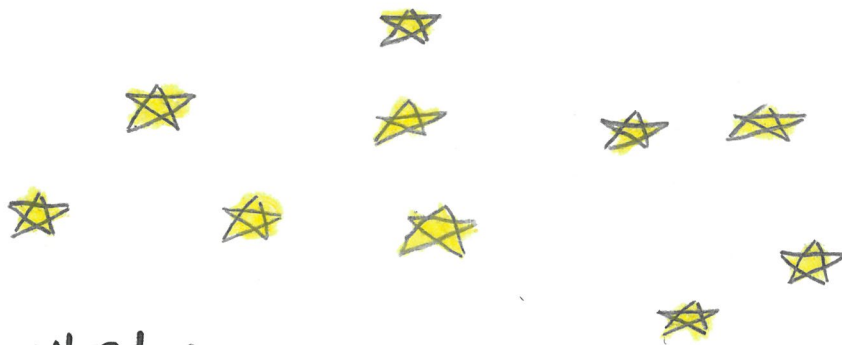
사슴뿔 • 이예준

곰돌이에게 • 최지우

여름 • 황성윤

# 반짝 반짝 별

클,그림 고은별



아빠와 함께  
별을 보았다.

별은 노란색에  
반짝반짝  
빛이 났다.

나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  
씩 자워주었다.



# 남긴 밥

글: 김봄 그림: 김봄

강아지가 먹고 남긴  
밥은 쥐가 와서 먹고  
게미도 와서 먹고  
참새도 와서 먹고  
개미도 와서 먹고  
그릇이 반짝반짝  
해 줘네.

다음에 남기고 먹어야겠네.  
주인한테 한 그릇 더~!



가을

# 바람

봄

글 김태현 그림 김태현

봄 바람은 살랑살랑

여름 바람은 거칠거칠

가을 바람은 산뜻산뜻

겨울 바람은 너무 차가워

손발이 얼어버릴 거 같다.

하얗게 조물조물

손도 따뜻 하고

내 마음도 따뜻 해졌다.

여름

가을

# 사크의 모험

바다 속

클그림 방민준

사크 상어  
바다 친구들을  
기루혀네.

"오늘은 또 누굴 기루히지?"

앞에 먹이를  
탐색하고 있는데

바위 위로 올라갔네.

그러게  
사크 눈썹이 막혀죽고  
바다는 평화!



# 마 음의 꽃

괜찮아,

실수로 친구의 물통을 었었다.  
친구의 그림이 이상해 졌다.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빌려 줬다.

"고마워"

미소방긋

글! 이예호!



# 가을길

글그림 이선유

학교 가는길



가을바람이

나를 휘감싸네

낙엽은 살랑살랑

하늘은 푸르듯이

내 마음도 가을하늘처럼

차분하다.

벌써가을인가?



# 너와 나의 추억

글.그림:이하윤

너와 나의 추억이  
재미있었다.

우리가 신나게 뛰어놀던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너와 나의 추억.

다시 돌아갈수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재미있게  
또 놀고 싶다.



검정 고릴라 새 사이 백

검정 이랑 흰 새  
노고 표을테

그 그림이  
이하준

너의 이 있어 못가

검정이 죽먹으려 백을  
가 돼!

그냥 다 아가네.



알록달록 색깔

글,그림 양예서

알록달록 색깔

여러 색깔 모여 무지개

붉은 색깔 빨강

밝은 색깔 노랑

시원한 색깔 파랑

모든 색 오이면 점점

아무것도 없음 하양

알록달록 색깔

여러가지 색깔

# 살랑 살랑 꽃

글, 그림: 서율

아주 예쁜 꽃들  
살랑살랑 온 곳에 있네  
핑크꽃 주황꽃  
여러 색깔 꽃들  
아주 아주 예쁜 꽃들  
여기저기 다 있네

아주 예쁜 꽃들  
살랑살랑 온 곳에 있네  
핑크꽃 주황꽃  
여러 색깔 꽃들  
아주 아주 예쁜 꽃들  
여기저기 다 있네



# 즐거운 우리반



글.그림. 신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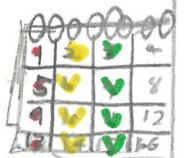


우리반은 항상 웃어요  
한명이 즐거우면 다같이 즐거워요



즐거운 우리반  
힘들어도 도움주어 더 즐거워요  
우리반은 항상 웃어요.

하하 하하 소리가 들리네요.  
웃음 가득 우리반



개구쟁이 덕분에 우리반 모두 덕분에  
웃음소리 들리네요.



#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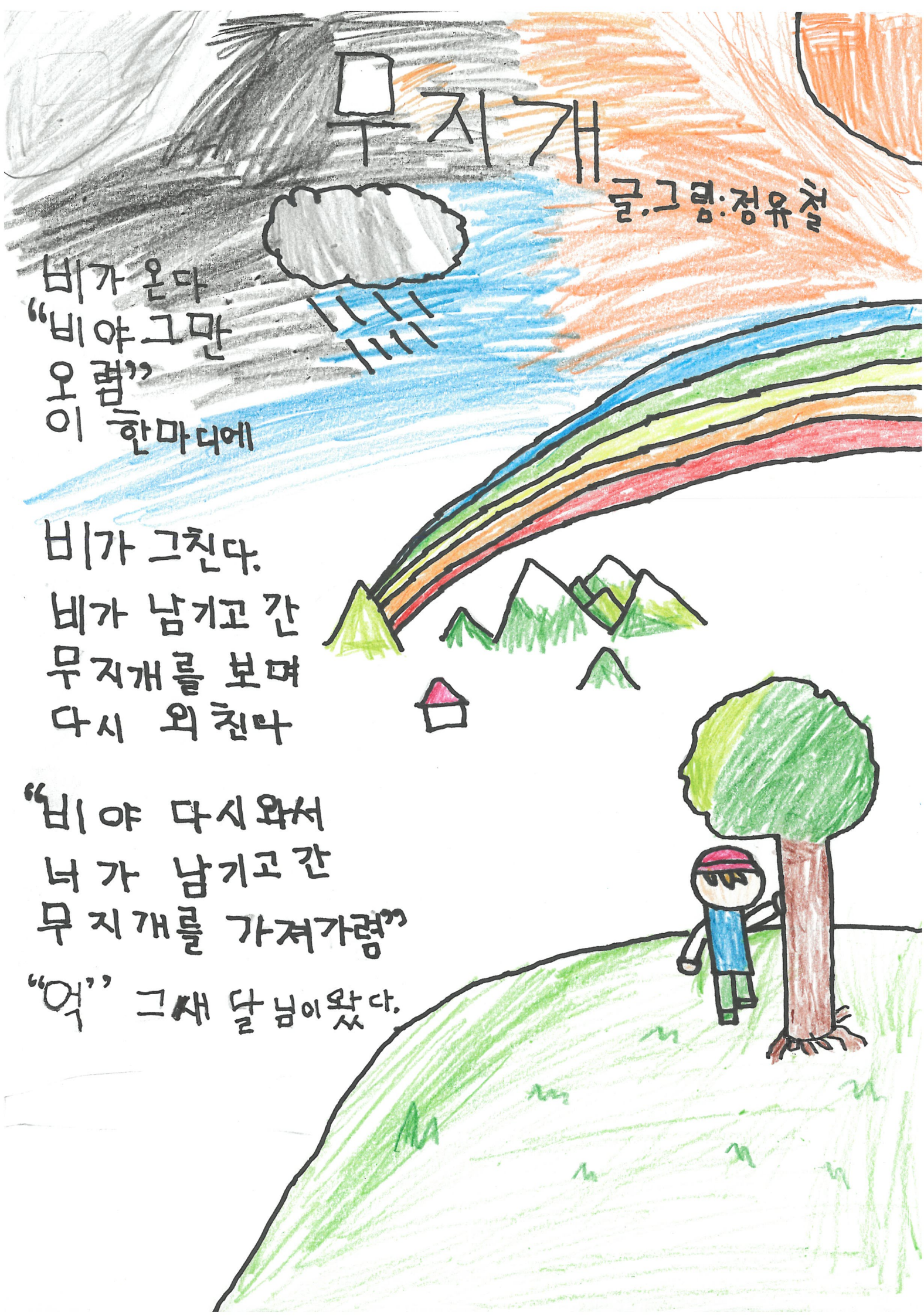
글.그림:정유철

비가 온다.  
“비야 그만  
오렴”  
이 한마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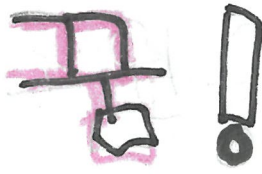
비가 그친다.  
비가 남기고 간  
무지개를 보며  
다시 외친다

“비야 다시와서  
너가 남기고 간  
무지개를 가져가렴”

“억” 그새 달님이 왔다.



나의



꿈, 글, 글

“자 오늘 나의 꿈을 발표해볼까요?”  
오늘은 꿈을 발표하는 날이다.

“지성이소라, 예나, 사라, 소원이, 마지막소리”  
헉! 벌써 나의 차례가 되었다.

“우려야?” “네!”

“저의 꿈은” “나의 꿈은 꿈이었는데 지어 서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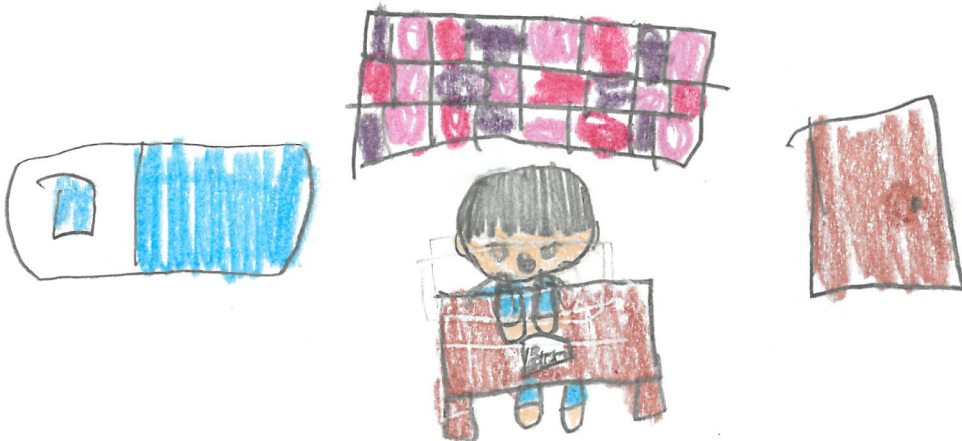
“저의 꿈은 농구선수입니다” “멋진 꿈이네요”  
“사이치수업 꿈!” “나의 꿈은 무엇?”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임마 나의 꿈은 뭐야?”

하루 이서 꿈을 발표했는데 꿈이 없어서 지어 서해어  
“꿈은 지어 서하는게 아니야 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 “알았어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간다”

나의 꿈 나의 꿈을 그려! 나의 장점을 생각하자! 나의 장점은 축구!

나의 꿈은 축구선수야 임마! 나의 꿈은 축구선수야!  
“잘했어!”



# 포도의 꿈

글·그림 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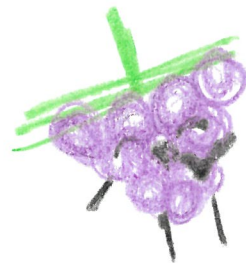
난 포도  
꿈이 있다.  
걸어 다니는 꿈

안녕?

난 포도  
꿈이 있다.  
노래 하는 꿈

나는 꿈이 많다.  
말하는 꿈  
사랑받는 꿈  
친구랑 노는 꿈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콩, 너는 죽었다

글: 김용택  
그림: 그레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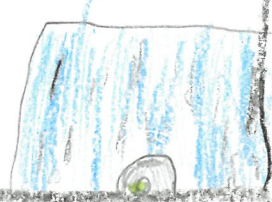
콩타 작을 하 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 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 간다.

콩 잡아라 저 콩 잡 아 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 어, 저 콩종 보라  
죽어있는 콩들 들어 가네

콩, 너는 죽었다



# 무지개 파라솔

글: 유강희  
그림: 김시현

이렇게 낮게 내려온 무지개는

처음 보다니  
아름다운 파라솔 무지개

그러면 옥수수 찹쌀떡 개미아까씨?  
그럼 할머니는요? 하고  
묻는다네

할매는 이 기특한  
무지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비닐 한 장 더 얹어 꼼꼼 사사맨네

할매는 무지개오자를 쏘  
이상한 나라 공주님,

심심한 무지개가 벋을 타고 내려와  
호박은 호박만 해  
고추는 고추만 해  
감자는 감자만 해  
복숭아는 복숭아만 해  
콩은콩만 해  
시루오른 지



# 달팽이

글 김용택

그림 노윤채

밤 새워 기어 왔나 봐요.

산 아래 풀잎 위에 달팽이가 쉬고 있네요

산은 높지요.

그러나 저 산을 넘어야 해.

달팽이가 기어갑니다.



# 바람의길

글양재홍그림민지우

코가입은

바람이드나 드는길이야

그길에 있어서

꽃향기도들어오고

갑갑한가슴을씻어내기도하지

숨을쉬니까

밤생각도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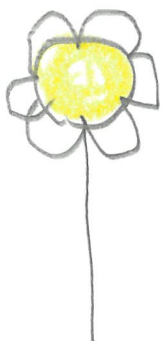
달코한잠도자고

가슴은공부도하고보은거란다

만약에이놈군가

실로친친 동인풍선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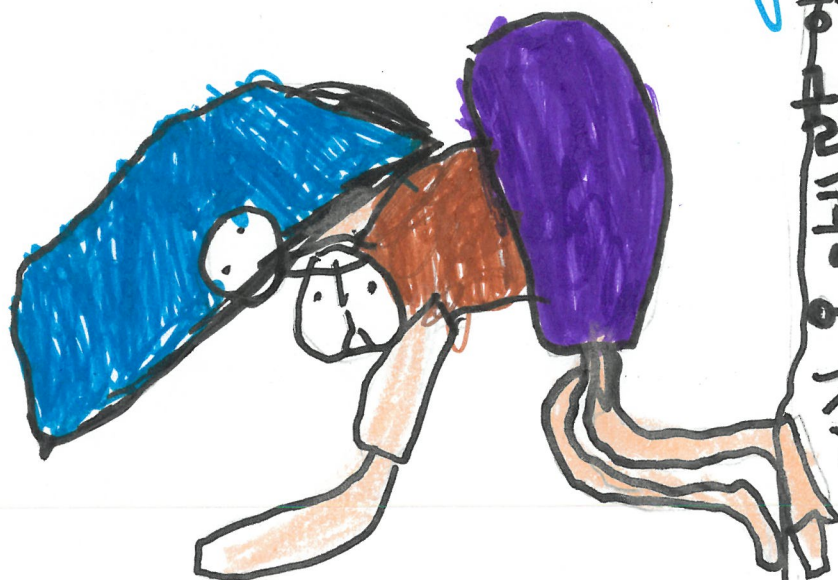
바람의길을막아버린다면?



박자수  
시화



거용택 글 박자수 그림



콩타작을 하겠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밭

에서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간다.

콩잡아라 콩잡아라

눌러가는 저 콩잡아라

콩잡으러 가는데

어어 저 콩 좀 봐라

쥐구멍으로 속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유광희 씨.  
여민준 그림



오리발에 불났다  
저수지 옆에 원  
가뽕 뚝아빠지는 물고기들  
엉덩방아 쪼개는 오리  
주둥이로 못을 박는 오리  
앞가슴으로 갈래질하는 오리  
자이언트 이모링 타는  
오리들 발마약에 불났다  
불났다 불났다 불났다  
호떡집이 아냐 저수지 한가운데

입

글 박혜선  
그림 오진욱

지 꼭질떡  
큰눈을갓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쑥쑥 빠져들다

내

내신발을 꼭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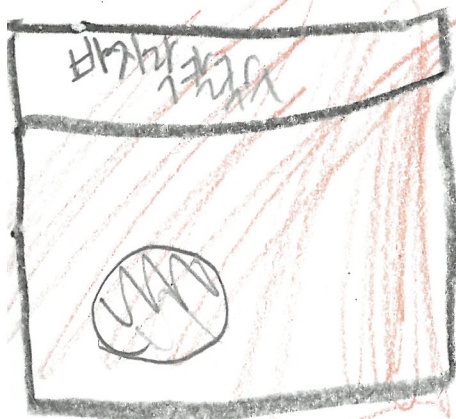
내양말을 꼭꼭

심지 어내까지

무시 무시한

갓벌의

입



새 새  
ㄱ



정호송 지음  
정지혜 그림

시화윤민준

휘파람을 불며 불며

두루미가 보름달을

향하 날아가네

보름달속 그로사 그려

바렸 다그 때 부터 보름달

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

# 사 기 느 르

글 김용택 그림 이은택

동생아랑 둘이서  
뒷산에 갑니다  
산뿔쯤으려 간 일마 마중 갑니다  
저녁 햇살이 돌아오는 산모퉁이로  
산복숭아 꽃잎 들며  
날아옵니다  
불바람 타고  
나폴 나폴 날아옵니다  
한양도요새와 태화

동생 머리위에  
날아와 앉더니  
불바람 타고  
산고늘내린  
산아래로  
우리 마을로  
한양계 날아 갑니다  
나비처럼 들릴까



# 사슴뿔

글: 박덕규  
그림: 이예준

사슴아, 사슴아!  
네 뿔은 언제 싹이 트니?

사슴아, 사슴아!  
네 뿔은 언제 꽃이 피니



# 곰돌이 어이게

나는 곰돌이 어이게  
비밀 이야기를 하지요

글 · 김 개 미  
그림 · 최 지 우

어젯밤 자기 전에

“티나 바보”라고 말한 것과  
“티나 미워”라고 말한 것

오늘도 자려고 누워서  
비밀 이야기를 하지요

어젯밤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너도 알지?



여름

글 권오삼  
그림 홍성운



하늘 활활  
매미눈 땀 땀  
잠새는 자작자작  
까치는 깹깹

나뭇잎은 팔랑팔랑  
개미눈은 땀 땀  
모두모두 아열대  
구름만 느릿느릿

